

비판적 사고와 여성적 가치*

최 훈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교양과정)

1. 머리말

국가에서 출제되는 모든 시험에서는 논리적·비판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문제가 출제된다. 그리고 출제 원칙에는 “특정 계층, 지역, 성에 불리한 문제는 출제해서는 안 된다.”라는 항목이 있고 실제로 지켜지고 있다. 만약 논리적·비판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문제가 여성에게 불리하다면 그 문제는 특정 성에 불리할 것이고 출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논리적·비판적 사고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의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여성에게 불리한 편협한 사고가 아닌가?

나는 이 글에서 논리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를 같은 말로 쓰겠다. 그리고

* 이 논문의 초고는 2008년 12월 6일에 덕성여자대학교에서 “여성주의 과학철학의 가능성과 한계”라는 주제로 한국여성철학회와 공동으로 열린 한국과학철학회 동계학술발표회에서 발표되었다.

주 제 어: 비판적 사고, 논리적 사고, 논리학, 여성, 남성

Critical Thinking, Logical Thinking, Logic, Women, Men, female values, male values, Gilligan, Tannen, Nye, McClintock

논리학은 비판적 사고와 동일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한 부분으로 생각된다. 비판적 사고를 강조하는 학자들이 비판적 사고의 기술로 제시하는 항목들을 보면 논리학에서 가르쳐지는 것들이 다수를 차지한다.¹⁾ 그러므로 편의상 논리학도 비판적 사고라는 개념에 포함시키겠다. 비판적 사고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²⁾ 대체로 “논증이나 추론에서 어떤 주장을 받아들일 때 아무 생각 없이 또는 습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당화하는 근거를 가지고 판단하는 사고”를 가리킨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비판적 사고는 교육의 이상으로 생각되기도 한다. 하비 시겔(Harvey Siegel)은 비판적 사고를 교육적 이상으로 간주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한다. 비판적 사고가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하고 어떻게 가르쳐야 하고 교육 활동을 어떻게 체계화해야 하고 그 활동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교육 환경에서 학생과 여타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등을 결정할 때 상당히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³⁾

그런데 여성은 정말로 비판적 사고가 부족한가? 만약 그렇다면 여성은 교육을 받아 계몽되어야 할 부족한 존재인가? 그러나 비판적 사고는 애초부터 여성에게 편파적인 가치가 아닐까? 만약 비판적 사고가 여성에 불리한 것이라면 여성에게 그것을 비판적으로 사고하라고 교육하는 것은 그들에게 낯선 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편파적인 가치를 교육의 이상으로 삼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에서 시작한 이 글은 먼저 2절에서 비판적 사고가 남성적인 가치를 추구한다는 학자들의 주장 몇 가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3절에서 논리학 또는 비판적 사고가 꼭 남성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여성적인 가치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래서 남성적인 가치인 이성만이 강조된 비판적 사고보다 애정과 협동이라는 여성적인 가치까지 부여된 비판적 사고가 가능하고 그것이 오히려 진정한 비판적 사고라고 주장할 것이다.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가지 명확하게 해 둘 것이 있다. 보통 남성은

1)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최훈(2008)을 보라.

2) 비판적 사고의 정의에 대해서는 김광수(2002)를 보라.

3) Siegel(1988): 46쪽.

이성적, 논리적이고 여성은 감성적이라고 말해진다. 이 말은 옳든 그르든 간에 특정 성, 특히 여성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데 쓰이기 쉽다. 남성이 여성보다 수학적 재능에서 뛰어나다는 연구가 그 과학적 사실과 별개로 그런 목적으로 흔히 이용된다. 따라서 남성이 논리적이고 여성이 감성적이라고 할 때 남성과 여성은 생물학적인 성(섹스)이 아니라 사회적 성(젠더)을 가리키는 데 쓰도록 하겠다. 곧 논리는 남성적인 가치이고 감성은 여성적인 가치라고 하더라도 남성 중에 그런 여성성을 가진 사람도 많을 수 있고 여성 중에 그런 남성적인 가치를 가진 사람도 많을 수 있다. 남녀 간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 원인이 선천적인 것이든 환경에 의한 것이든 간에 그 차이는 평균적인 것에 불과하다.⁴⁾

2. 남녀의 차이

(1) 길리건

심리학자인 길리건은 도덕적인 사고에서 남녀 간의 차이를 연구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의 연구는 남녀 간의 도덕적인 추론의 차이에 대한 것이지만 비판적 사고의 차이에 대해서 귀뜸해 주는 바가 크다. 그는 전통적인 도덕 이론에서 도덕적으로 열등하다고 치부된 여성적인 덕성인 보살핌(care)이나 감수성을 복원하고자 했는데, 그런 시도는 비판적 사고에서 전통적으로 열등하다고 치부된 여성적인 가치도 과연 꼭 열등한지 다시 생각해 보기 만들기 때문이다.

길리건이 도덕 추론에서 남성적인 관점과 여성적인 관점이라고 보는 것

4) 길리건(1994)도 “남성의 관점과 여성의 관점을 대조시키는 이유는 양성의 관점에 대해 일반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12쪽). 싱어(1997)의 2장은 공격성과 공간지각력을 사례로 남녀간의 차이가 갖는 윤리적 함의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은 각각 정의의 윤리와 보살핌의 윤리이다. “정의의 윤리가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평등의 전제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 보살핌의 윤리는 어떤 사람도 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는 비폭력의 전제에 의존하고 있다.”⁵⁾ 그리고 “보살핌의 윤리에 깔린 논리는 인간관계에 내포된 인간 심리의 논리이며, 정의의 입장에 전개된 형식적인 공정성의 논리와는 대조된다.”⁶⁾ 그런데 콜버그의 도덕 발달 이론에 따르면 여성은 도덕적으로 열등한 존재이다. 콜버그가 말한 도덕 판단의 여섯 단계에서 여성은 “도덕을 대인 관계적인 것으로 파악하며, 선함이라는 것도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거나 즐겁게 해주는 것과 동일시하는” 3단계에 머물지만, 남성들은 “인간관계가 규칙에 의해 지배를 받는 단계(4단계), 규칙이 정의의 보편적 원리에 종속되는 (5, 6단계) 단계”⁷⁾까지 나아가기 때문이다. 성숙한 단계의 도덕 원리는 칸트의 정언 명법이나 황금률 같은 보편적인 도덕 원리에 따라 행동할 텐데, 개인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보살핌의 윤리는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나 길리건은 규칙이나 보편적 원리가 사람들 사이의 친밀함보다 더 우위의 발달 단계라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콜버그를 비판하면서 여성성이 결코 하위 단계의 도덕 추론이 아님을 보여주려고 한다.

(…)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대한 감수성이나 보살핌 등 전통적으로 여성적 ‘덕성’으로 규정되었던 바로 그 특성들 때문에 여성들이 도덕 발달에서 열등한 것으로 여겨진다는 이 사실에 바로 역설이 있는 것이다.⁸⁾

남성들은 인간관계를 서열 구조로 이해한다. 반면에 여성들은 그물 구조로 이해한다. 그렇게 된 데에는 여성은 자신을 스스로와 비슷하게 보는 어머니에 의해 자라기 때문에 자신을 여성으로 인식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어

5) 길리건(1994): 300-1쪽.

6) 길리건(1994): 131쪽.

7) 길리건(1994): 39쪽.

8) 길리건(1994): 39쪽.

머니와 비슷하다고 느끼게 되고, 정체감을 형성하는 과정에 애착 관계와 감정입의 경험을 흡수하게 된다. 반면에 남성은 자신과 대비되는 남성으로 경험하는 어머니에 의해 길러지기 때문에 자신을 어머니와 구분지음으로써 분리를 경험하게 되고 개인화는 심화되며 자율성이 길러지게 된다. 그러므로 여성의 도덕 추론을 남성의 그것보다 열등한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길리건은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도덕 발달관에서 도출된 성숙관은 남성들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남성들의 발달에서 강조되는 개인화의 중요성을 전제하고 있다. (...) 여성들에 대한 연구에 중점을 두고 여성들의 삶으로부터 발달의 구성물들을 도출한다면 프로이트, 피아제, 콜버그의 관점과는 다른 도덕관이 형성될 것이며, 발달도 달리 묘사될 것이다. 이 관점에서는 권리들이 충돌해서가 아니라 책임들이 충돌해서 도덕 문제들이 일어날 것이며,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형식적이고 추상적 사고방식이 아니라 맥락적이며 이야기체의(narrative) 사고방식일 것이다. 공정성으로서의 도덕관이 권리와 규칙에 대한 이해를 도덕 발달의 중심에 두는 것처럼, 보살핌의 활동과 관련된 도덕관은 책임과 인간관계에 대한 이해를 도덕 발달의 중심에 둘 것이다.⁹⁾

결국 남성적인 그리고 여성적인 도덕관은 우위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른 삶의 진리’¹⁰⁾일 뿐이다.

인간관계를 서열 구조로 보는 남성은 구체적인 맥락 속에 있는 인간관계보다는 그것을 추상화하고 형식화한 규칙에 관심을 갖게 된다. 그래서 그들은 경쟁적 성공에 집착하고 공격성을 띄게 된다. 반면에 여성은 사람들 사이의 연결과 친밀감이 중요하다. 길리건의 이런 연구가 비판적 사고에 주는 함의는 분명하다. 만약 비판적 사고가 이런 여성적인 특징보다는 남성적인 특징을 더 많이 띠는 것이라면, 남성적인 도덕관이 여성적인 도덕관보다 더

9) 길리건(1994): 39-40쪽.

10) 길리건(1994): 270쪽.

우위라고 볼 수 없는 것처럼, 비판적인 사고도 우리 모두가 따라야 할 덕목도 아니고 비판적이지 못한 여성이라도 열등하다고 볼 수 없다.

(2) 태년

언어학자인 데보라 태년(Deborah Tannen)은 남자와 여자의 대화 방식의 차이점에 주목하는데,¹¹⁾ 길리건과 설명 대상은 다르지만 같은 시각에서 남성과 여성의 관점을 바라본다. 그에 따르면 남자는 대화를 통해서 지위를 확보하려고 하는 데 반해 여자들은 협동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남자들은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 가급적이면 상대방이 알아듣기 어려운 단어를 즐겨 쓰”고, “자신이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즐기”려고 하지만, 여자는 지식을 독점하지 않고 공유함으로써 서로의 이해도를 높이려 하는 경향이 강하다.¹²⁾ 인간관계를 상하 관계로 보는 남자들은 자신을 문제 해결사로 생각하여 불평이나 고통은 곧바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도전으로 생각한다. 남에게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면 그것은 남이 갖지 못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 이것은 상대방보다 우월하다는 암시를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령 부인이 흉터 때문에 유방이 볼품없게 될 거라는 걱정을 늘어놓으면, 남자는 “뭘 그런 걸 고민하고 그래? 성형 수술을 해서 흉터를 지우면 되잖아? 그러면 당신은 옛날과 같은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 거야.”라고 대답한다.¹³⁾ 그러나 이런 대답은 여자들을 화가 나게 만든다. 인간관계를 상호의존적이고 조화로운 관계로 보는 여자들은 누군가에게 자신이 고통 받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상대방으로부터 이해 또는 동

11) 그의 책은 우리말로 여러 권이 번역되어 있다. 태년(2001) 외에도, 《가슴으로 말하는 엄마 머리로 듣는 딸》(문은실 옮김, 부글북스, 2006), 《일터에서의 남 vs 여 대화의 법칙》(이은희 옮김, 예문, 2003), 《넌 사랑해서 하는 말이야》(남재일 옮김, 생각의나무, 2006), 《사랑한다면 그렇게 말하지 마》(남재일 옮김, 생각의나무, 2003), 《내 말은 그게 아니야》(한울, 1992) 등이 있다.

12) 태년(2001): 40~41쪽.

13) 태년(2001): 23쪽.

감을 구하고 상호관계를 강화하겠다는 의도이기 때문이다. 여성에게는 이때는 “만약 나한테 지금 너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아마 똑같은 감정을 느끼게 될 거야.”나 “우리들은 똑같아. 그러니까 너무 외로워할 것까지는 없어!”라는 대답을 기대한다.¹⁴⁾

남자는 여자에 비해 경쟁을 즐긴다. 그래서 남자들은 축구나 야구처럼 경쟁적인 게임을 즐기지만 여자들은 스포츠나 게임에 별로 흥미를 느끼지 못하거나 고무줄놀이처럼 전체가 한 팀이 되어서 노는 활동을 더 좋아한다. 남자는 대화도 “우위를 획득하고 그 자리를 계속 지키기 위한 협상”으로 간주한다. 반면에 여성들은 대등한 관계 속의 한 개인으로 세상에 접근한다. 그들에게 “대화란 서로를 끊임없이 확인하고 지지하며 합일점에 도달하기 위한 협상”이다.¹⁵⁾ 그래서 남자들은 논쟁도 투쟁으로 생각하여 그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즐긴다. 남자들은 논쟁에서 반대 의견을 표시하는 것을 의무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럴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우정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반면에 여자들은 논쟁을 피하든가 논쟁을 벌이더라도 직접 대결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려고 한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말 ‘논쟁’이라는 낱말 자체에도 ‘전쟁’이라는 뜻이 들어있고, 영어나 우리말 모두 ‘논증에서 이겼다’나 ‘공격을 방어했다’처럼 논증을 전쟁으로 비유하는 표현은 많다.¹⁶⁾

남자, 여자 사이의 이런 특징 때문에 여자들은 논리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추상적인 논쟁보다 개인적인 경험이나 예를 동원하려는 여자의 속성은 언어를 사적 대화에서만 사용하려는 측면이 강”한데,¹⁷⁾ 잘 알다시피 그런 식의 접근법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저지르는 것이다. 그러면 여자들은 비논리적이라고 비판을 받아야 하는가? 태넨은 그렇게 비판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논리 전개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

14) 태넨(2001): 28쪽.

15) 태넨(2001): 48쪽.

16) 이 표현들에 대해서는 레이코프&존스(2006)를 보라.

17) 태넨(2001): 103쪽.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아내의 논리도 세계를 보다 개인적인 시각으로 파악하려는 여성들의 심리상태를 감안한다면 충분히 수긍이 간다. 즉 개인의 경험을 다른 사람의 경험에 접목시키려 하는 여자들의 속성상 자연스러운 것이다. 반면 남자들이 정당하다고 여기는 논리는 보다 공개적인 속성을 갖는다. 즉 정보를 수집하고, 조사를 실시하고, 형식적인 논리 규칙에 의거해 논쟁을 벌이는 쪽이다.¹⁸⁾

상호의존적인 세계에서 개인 사이의 협동적인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자는 그런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추상적인 논쟁보다 개인적인 경험을 더 중요시할 수밖에 없다. 그런 여자들을 비논리적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논리학의 용어로 말해보면, ‘은밀한 재정의의 오류’이다. 여자들에게만 편파적인 논리 개념으로 그들을 재단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3) 나이

우리는 논리학이 내용보다는 형식에 치중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형식 논리학에서 논증의 타당성은 논증의 형식에 의존하지 내용과는 관련이 없다. 여성주의 철학자인 안드리아 나이(Andrea Nye)는 《권력의 말: 논리학사의 여성주의적 독해》(Words of Power)에서 파르메니데스부터 프레게까지 논리학의 역사를 검토한 다음 내용에서 분리된 그런 논리학이 남성 중심의 논리학이라고 비판한다.

나이는 콰인의 《논리학의 방법들》(Methods of Logic)에 나오는 “존스는 아프거나 스미스는 없다.”라는 예를 봤을 때의 느낌을 말한다. 존스가 아프다고? 지금도 아프는가? 그리고 왜? 스미스는 자주 없나? 어디에 갔지?¹⁹⁾ 그

18) 태년(2001): 104쪽.

19) Nye(1990): 2쪽.

러나 논리학에서는 그런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그 진술들은 p나 q로 형식화된다. 논리학의 진리는 그 진술을 한 사람이나 대상이 되는 사람의 개인적인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나이는 그런 논리학은 남성적인 주제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말한다.

논리학자들은 부정하지만 논리학은 인간이 만든 것이다. 그래서 논리학은 무엇인가에 관해서, 야망, 두려움, 바람, 실망, 절망에 관해서 말해야 한다. 논리학은 공통된 세계의 대상들을 언급해야 한다. 어떤 것에 대해서 말해야 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말해야 하고 그래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²⁰⁾

논리학의 절대적이고 영속적인 방법론은 서로 부대끼는 구체적인 인간 경험에서 우연히 생기는 인간사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는 논리학의 역사에서 논리학으로 대표되는 합리적 사고는 남성인 권력자의 것으로 본다. “통치자인 사람들의 합리성은 여성의 감정적 표현, 노예의 비이성적인 말, 외국인의 원시적인 정치적 견해, 육체노동자의 오염된 의견처럼 받아들일 수 없는 언어 능력과 대조적으로 정의된다.”²¹⁾ 그래서 남성들은 자신들이 강점을 보이는 것을 합리적이라고 규정하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여성, 노예, 외국인 등을 무시하고 억압한 것이다.

합리적 토론에서 제외된 사람들은 여자뿐만이 아니었다. 논리학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감정과 욕망을 조절할 수 없었던 노예, 그리스인이 아닌 외국인, 그리스의 하층 노동자들은 논리적 사고를 할 수 없었다. (...) 논리적 사고에 익숙하지 못하고 그것을 교육받을 기회가 없었던 그들은 엄밀함이 부족하고 합리적 표현의 범주들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비난받을 수 있었다. 그들이 논리적 사고의 나무 밖에서 감히 말하려고 한다면 (...) 쫓겨나가거나 조롱당할 수 있었다.²²⁾

20) Nye(1990): 4쪽, 원문 강조.

21) Nye(1990): 50쪽.

여성이 논리학을 못한다면 그것은 남성이 여성보다 더 똑똑하기 때문이 아니라 논리학이 만들어지는 언어 상황이 남성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나이가 보기에 논리학은 그 학문이 태어날 때부터 변화와 감정과 인간성이 중시되는 여성의 세계를 배제하기 위한 지배 권력의 언어였던 것이다. 논리학은 사회적 계층을 만들고 특정 계층을 배제하기 위한 도구였다.

나이의 이런 비판에 대해 그것은 발생적 오류 또는 사람에의 호소 오류를 저지르는 것 아니냐고 대꾸할 수 있다. 어떤 생각의 발생이나 그 생각을 한 사람은 그 생각의 진리와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역사적 근원이 어떻든 누가 말했든 말한 의도가 무엇이든 진리는 그 자체로 판단되어야 하고, 특정 사회적 조건이나 사람을 언급하지 않고 진리 법칙을 세우는 것이 논리학이 할 일이다. 그러나 그는 그런 논리학을 거부한다. “말이 발생한 ‘근원’을 알지 못하고서, 논리학자가 말한 상황과 관심사를 알지 못하고서, 그들이 누구인지, 어떤 종류의 ‘남자’인지 그들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서”²³⁾는 진리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말 그 자체는 아무리 분명하게 제시되어도 진리를 말할 수 없다. 말은 의미를 가져야 하고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누군가에 의해서 어느 곳에서 어느 시점에서 말해져야 한다.”²⁴⁾

프레게 이후 인공적인 형식의 언어가 만들어짐으로써 논리학은 추상적인 성격이 더 강해지고 경험으로부터 유리되는 측면이 더 강해진 것은 사실이다. 그것은 분명히 앞서 길리건과 태년도 강조했듯이 여성에게는 낯선 화자들 사이의 관계를 가정하고 거기에 맞춰 여성을 비논리적이라고 단정하게 만든다. 그러나 논리학자들 스스로도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여 진술이 쓰이는 구체적인 맥락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비형식적 논리학이 나타나게 된다. 비형식 논리학은 더 이상 나이가 말한 것처럼 “어떤 것을 누가 왜 말했는지 잊어버리라.”²⁵⁾고 가르치지 않는다. 나이가 제기한 문제점은 어느 정도

22) Nye(1990): 37쪽.

23) Nye(1990): 174쪽.

24) Nye(1990): 175쪽.

25) Nye(1990): 183쪽.

해결된 것 같기도 하다. 그리고 논리학이 추구하는 형식화의 장점이 분명히 있다. 또 현대의 논리학자들이 자신들이 추구하는 논리적 진리가 세상의 모든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나이의 비판이 과도하게 생각될 수도 있다. 그러나 나이의 항변은 꼭 논리학이란 학문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영원과 순수에 대한 바람으로 “생성과 변화의 물리적 세계를 부정”²⁶⁾하는 ‘이성’의 지배적인 속성을 문제 삼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그의 논리학에 대한 문제 제기는 곧 비판적 사고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맥락을 중시하는 비형식적 논리학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성을 판관으로 삼는 이상 여전히 여성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

(4) 매클린톡

길리건, 태넨, 나이의 지적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들의 비판도 논리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학문을 이끄는 원리는 이성애 근거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들은 스스로 모순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1983년에 노벨 의학상을 수상한 바바라 매클린톡(Barbara McClintock)은 과학에서 이성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고 말한다. 과학사학자인 이블린 폭스 켈러(Evelyn Fox Keller)의 매클린톡 전기 제목인 《생명의 느낌》이 그것을 잘 말해준다. 이성의 힘만으로 자연의 원리를 캐내고자 했던 남성 과학자들과 달리 매클린톡은 자연 대상의 차이,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려는 것을 과학의 목표로 생각했다. 그리고 ‘생명체의 교감을 통한 생명의 느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해 준다고 말한다.

그녀의 답은 간결하다. 언제나 똑 같은 대답을 한다. 충분히 시간을 갖고 열심히 들여다보면서 ‘대상이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들을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나에게 와서 스스로 얘기하도록’ 마음을 열고 들으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생명에 대한 느낌’을 개발하는 일이며, ‘생명이 어떻

26) Nye(1990): 180쪽.

게 자라는지를' 깨우쳐야 하며, '생명의 각 부분을 빠짐없이'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²⁷⁾

합리적인 과학적 방법은 연구하는 대상과 감정적으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절대적인 객관성을 강조한다. 거기서는 주체와 객체의 확연한 분리를 통해 지식을 구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매클린톡은 오히려 “엄격한 분리가 아니라 온전한 합체를 통해 더욱 진정한 지식이 가능하다.”²⁸⁾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는 빵 위에 피는 붉은곰팡이인 뉴로스포라의 염색체를 연구에 몰두할 때 염색체 바깥에 있지 않고 그 안에 있어서 모든 게 다 훤히 보이는 특별한 체험에 대해 이야기한다. 과학에서 정말로 핵심을 관통하는 지식은 그렇게 사랑에 빠진 연인들의 환희나 구도자들의 삼매경과 비슷하게 수동적 대상인 객체가 능동적 주체 안으로 온전히 흡수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²⁹⁾

우리는 매클린톡의 발언을 단순히 비유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신비 체험일 뿐이라고 무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켈러도 인정하는 것처럼 “매클린톡 역시 다른 자연과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자연에는 일정한 규칙이 있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으며, 이러한 규칙을 정교하게 표현하는 노력에 동참했다. 차이가 있다면 오로지 실험과 논리에만 의존하는 그런 작업을 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뿐이다.”³⁰⁾ 다시 말해서 전적으로 이성적인 작업이라고 생각되어 온 과학의 연구 방법론에도 앞서 길러진, 태년, 나이에서 여성적인 가치로 인식되었던 감정, 애착, 직관, 주관 등의 역할이 인정받는 것이다. 설령 대상에 감정 이입을 하여 그것의 이야기를 듣고 느끼는 것도 공동체로부터 공유할 수 있고 신뢰성 있는 지식 생산의 한 가지 방식이다.

27) 켈러(2001): 328쪽.

28) 켈러(2001): 203쪽.

29) 켈러(2001): 202-3쪽.

30) 켈러(2001): 333쪽.

3. 비판적 사고와 여성

지금까지 비판적 사고 또는 논리학은 남성적인 가치라는 길리건, 태넨, 나이, 매클린톡의 주장을 살펴보았다. 그들의 논의에서 비판적 사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남성은 합리적인 것을 중시하는 데 비해, 여성은 감정을 중시한다.
- 남성은 대립적이고 공격적인 관계를 만들지만, 여성은 협동을 하려고 한다.
- 남성은 개별적이고 자율적인 데 비해, 여성은 친밀함과 보살핌 같은 공동체의 관계를 중시한다.
- 남성은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원리와 일반화된 규칙에 따라 판단하지만, 여성은 구체적인 맥락에서의 경험과 상황에 의거하여 판단한다.
- 남성은 객관적인 공정성을 요구하지만, 여성은 애착과 감정이입에 의해 다른 사람을 바라볼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남성과 여성은 사고 전개 방식이 다르다. 그러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논리적이지만 못하고 비판적이지 못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서양과 동양의 사고방식의 차이에서도 이 남성과 여성의 사고방식의 차이와 비슷한 점이 있다. 심리학자 니스벳(Richard Nisbett)에 따르면 “동양인들은 오감에서 비롯되는 감각적 증거와 상식을 신뢰하여 스스로의 경험에 위배되는 주장은 수용하려 들지 않”³¹⁾는다. 그는 그 점을 보여주는 실험 증거들을 보여주고, 그것은 동양에서 “어떤 논리적 주장의 ‘내용’은 무시하고 ‘형식’만 고려하는 탈맥락주의를 완강하게 거부했기 때문이다.”³²⁾라고 말한다. 그러나 니스벳은 이 차이에서 동양인이 서양인보다 형식 논리 자체에 약한 것이라는 결론은 나오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는 자신의 “연구를 통해 주장하려고 하는 바는 형식 논리와 개인적인 경험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동양인들이 형식

31) 니스벳(2004): 159쪽.

32) 니스벳(2004): 160쪽.

논리를 덜 사용한다는 점이다. 논리적 사고 능력 자체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³³⁾라고 말한다. 니스벳이 동양인이 서양인보다 약한 것이 곧 ‘형식’ 논리라고 말한 것에 주목할 만하다. 동양인이 다른 방식으로 논리적일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그리고 형식 논리가 논리와 동의어라고 하더라도 서양인이 동양인보다 논리적이라는 것은 그들이 일상생활에서 논리화적인 법칙을 적용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이지 논리적 능력을 묻는 테스트에서 더 탁월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³⁴⁾

니스벳의 동·서양인의 비교를 남성과 여성의 차이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 곧 남성이 여성보다 논리적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형식 논리에서 그럴 뿐이고 일상생활에서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습관이 없을 뿐이라고 말이다.³⁵⁾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다. 그것이 곧 여성의 (또는 동양인의) 논리적 사고 능력이 떨어진다는 뜻 아닌가? 논리적·비판적 사고력이 뛰어나다는 것은 순수하게 추상적인 논리 문제를 잘 푼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일상적인 추론에서 논리적인 능력을 발휘한다는 뜻 아닌가? 이런 물음이 일리가 있다면 우리는 오히려 여성이 그런 의미에서는 비판적이지 못하다는 결론을 단단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따지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 그것은 길리건, 태넨, 나이, 매클린톡의 주장처럼 위에서 말한 비판적 사고의 특징은 곧 남성적인 사고의 특징이라고 인정하는 것이다.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사고를 할 뿐이다. 여성은 그런 식으로 사고하도록 교육받아왔다. 그러므로 여성이 비판적인 사고에서 열등하다

33) 니스벳(2004): 181쪽.

34) 논리적 사고가 악덕인 문화도 있다. Jean Briggs, *Never in Anger* (Harvard University Press, 1970): 363-4쪽에 따르면 이누이트에게는 논리적 사고와 같은 지적 능력이 지나치면 오히려 상대방에 대해 배려가 부족한 것이 되고 화를 내게 만들기도 한다고 한다. 그들에게는 “왜?”같은 질문이 모욕적이고 건방지게 생각된다. Norris(1995): 202-3쪽에서 재인용.

35) 실제로 심리학자인 Deanna Kuhn은 10대부터 성인까지 160명을 연구한 끝에 한 성이 다른 성보다 논증적 사고에서 더 뛰어나다는 증거는 없다고 결론을 내린다. Kuhn(1991): 280-1쪽.

는 결론은 여성에게 편파적인 기준으로 단정을 내리는 것일 뿐이다.

여기서 비판적인 사고에 대해서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하나는 비판적인 사고의 보편적인 가치와 교육의 이상이라는 역할을 무시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여성적 가치를 비판적 사고에서 살릴 수 있으며 오히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비판적 사고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나는 여기서 두 번째 가능성을 살펴보고 싶다. 비판적 사고의 기술과 성향을 구분하고 그 중 비판적 사고의 성향을 기르는 것이 여성적인 가치를 함양하는 것이다.³⁶⁾

사실 비판적 사고가 그렇게 편파적인가? 우리는 나이도 인정한 것처럼³⁷⁾ 비판적 사고를 배움으로써 미신에서 벗어나게 되고 전제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고 자신의 주장을 근거를 가지고 강력하게 제시하게 되지 않았는가?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이다. 그리고 이성만이 강조됐을 때 그것이 잘못 이용될 수도 있다. 나는 이성만이 강조된 비판적 사고보다 여성적인 가치가 부여된 비판적 사고가 가능하고 그것이 오히려 진정한 비판적 사고라고 주장하겠다.

현대의 비판적 사고 연구가 중에 가장 유명한 학자 중 한 명인 로버트 에니스(Robert Ennis)는 비판적 사고를 “명제들의 올바른 평가”³⁸⁾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나서 비판적 사고의 12가지 측면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1) 진술의 의미 파악, (2) 추론 과정에서 모호함이 있는지 판단, (3) 어떤 진술들이 서로 모순되는지 판단, (4) 결론이 필연적으로 도출되는지 판단, (5) 진술이 충분히 구체적인지 판단, (6) 진술이 어떤 원리를 실제로 적용한 것인지 판단, (7) 관찰 진술이 신뢰할만한지 판단, (8) 귀납적 결론이 개연성이 있는지 판단, (9) 문제가 정확히 무엇인지 판단, (10) 어떤 것이 전제인지 판단, (11) 정의가 무엇인지 판단, (12) 권위 있다고 생각된 것에 의한 진술이 받아들일 만한지 판단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들은 논리학 또는 비판적 사고 수업에

36) 나는 위에서 말한 여성적인 가치 중 맥락의존성은 비형식 논리학의 발전에 의해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고 생각한다.

37) Nye(1990): 181쪽.

38) Ennis(1962): 83쪽.

서 가르쳐지는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않다. 에니스의 비판적 사고는 사고의 과정이 아니라 그 결과물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다시 말해서 비판적 사고를 한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런 사고를 하게 되었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고의 결과물인 진술들을 평가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어떤 사람이 예컨대 어떤 논증에서 전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판단할 줄 알고 그 전제에서 결론이 필연적으로 도출되는지 아니면 개연적으로 도출되는지 판단하는 기술을 갖추고 있으면 그는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것이다. 이런 기술들은 모두 합리성이라는 남성적인 가치이다. 그런데 이런 기술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비판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³⁹⁾

몇몇 학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우려를 나타낸다. 시겔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진술 평가 기술을 소유하고 있지만 아주 무비판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아주 많이 볼 수 있다.”⁴⁰⁾라고 주장한다. 에니스가 말한 12가지 측면들은 일반적인 논리학 교과 과정과 대체로 일치하고, 따라서 논리학 학습을 통해서 습득할 수 있는 것들이다. 문제는 논리학 교과서에서 제시된 진술 평가를 벗어난 상황에서 비판적인 사고가 필요로 할 때이다. 가령 어떤 정책에 대한 지지 여부를 결정할 때 또는 어떤 물품을 구매할 때처럼 비판적 사고를 필요로 하는 일상적인 진술 평가 활동에서 그런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느냐이다. 시겔이 보기에는 그렇지 못하다. 그들은 특히 자신들과 이해관계가 걸린 주장에 대해서는 비판적 사고의 기술을 발휘하지 않거나 공평하지 않게 발휘한다. 우리는 도덕 영역에서 지행의 괴리 문제에서 이와 비슷한 현상을 목격할 수 있다. 도덕 규칙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 도덕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비판적 사고의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다시 말해서 비판적 사고를 검사하는 문제들은 잘 풀지만 비판적 사고의 태도는 갖추고 있지 않은 사람

39) 비판적 사고의 기술과 성향의 구분은 최훈(2008)에서 자세하게 논의했다. 나는 거기서 그것들의 의미를 분석하고 비판적 사고의 성향을 개발하는 한 가지 수업 방법을 제시했다. 아래 논의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 논문을 참조하라.

40) Siegel(1988): 6쪽.

을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시겔은 비판적 사고 자체보다는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사람’(critical thinker)을 정의한다. 그 사람은 다른 비판적 사고 정의에서 강조한 기술뿐만 아니라 비판적 태도의 성향도 있어야 한다. 어떤 사람에게 비판적 사고의 성향이 있다는 것은 그가 어떤 조건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어떤 사고, 판단, 행동 등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한다. 비판적 사고의 기술만 있는 사람은 비판적인 사고를 발휘하는 것이 가령 비판적 사고 검사를 할 때처럼 유리할 때만 그런 행동을 하고 자신의 뿌리 깊은 편견을 버려야 할 때처럼 불리할 때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지만,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느 때나 그런 행동을 보인다.

리차드 폴(Richard Paul)도 기술에 입각한 비판적 사고 개념에 대해 비판적으로 평가하는데, 그런 개념을 약한 의미의 비판적 사고라고 부른다. 그런 접근법에서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문제가 있는 가정은 비판적 사고를 자기 기만, 배경이 되는 논리, 다양한 범주의 윤리적 이슈에 주목을 하지 않고서도 하나하나씩 숙달할 수 있는 한 별의 기술로 성공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라는 점이다.⁴¹⁾ 폴이 보기에 전형적인 비판적 사고에서 가르쳐지는 논증들은 그 논증들이 실제로 쓰이는 대화론적인 맥락에서 배경 지식을 고려하여 다른 진술들과의 관련 속에서 검토되는 것이 아니다. 그 논증들만 따로, 폴의 용어에 따르면 “원자적인 논증들”⁴²⁾에만 주목하여 평가한다. 폴의 이런 비판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해준다. 첫 번째는 논증은 맥락에 따라서 오류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곧 논증은 그것이 쓰이는 대화론적인 맥락에서 배경 지식과 함께 평가해야지 ‘원자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그 배경 지식을 고려하여 평가했을 때 오류라고 판단되었다고 하자. 그때 그 논증을 나쁜 논증으로 버려야 하는가? 이 점에 대해 폴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41) Paul(1982): 3쪽.

42) Paul(1982): 3쪽.

실제 세계에서 논증 교환은 서로 경쟁하는 관점을 합리적 토론으로 이끄는 수단이 되고, 개별적인 ‘오류’로는 근본적인 추론 방침을 비판하는 일이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⁴³⁾

이 점은, 폴은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논증을 무엇이라고 보는지, 더 나아가서 비판적 사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와 관련되어 있다. 에머렌(F. H. van Eemeren)과 그루텐도르스트(Rob Grootendorst)의 화용-대화론적(pragma-dialectical) 이론에서는 논증을 “규칙적인 언어 행위의 교환을 통해 의견 차이의 해소를 목표로 하는 상호작용 절차”라고 정의한다.⁴⁴⁾ 곧 논증을 전제와 결론으로 이루어진 결과물로 보고 거기에 대해 형식적으로 또는 비형식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언어 행위로 간주하는 것이다. 논증에 대한 논리적 접근에서는 논증의 전제와 결론 사이에 성립하는 논리적 관계에만 관심을 보이고 논증이 속한 의사소통 과정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지만, 화용-대화론적 접근에서는 의견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언어활동에 관심을 보이는 것이다.

화용-대화론의 핵심적인 주장은 대화에 참여하는 합리적인 당사자들이라면 가질만한 전제에서 출발한다. 합리적인 대화 참여자라면 상대방과 끝없이 논쟁하기보다는 의견의 차이를 해소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논증이 충분히 강하지 않다는 것이 드러나는 경우에도 그것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폐기할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 화용-대화론적 논증 이론은 바로 이런 생각을 체계화한다. 우선 활동의 의미를 지닌 논증적 담화나 텍스트는 “합리성의 비판적 규범에 따라 의견 차이를 해소하는”⁴⁵⁾ 데에 목표를 둔다고 말한다. 논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의견의 차이를 예측하거나 거기에 반응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며 그 불일치를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것이다. 비판적 사고 이론가인 폴이 논증에 대

43) Paul(1982): 3쪽.

44) Eemeren&Grootendorst(1992): xiii쪽.

45) Eemeren&Grootendorst(1992): 53쪽.

한 특정 견해를 밝힌 적은 없지만, 위 인용문으로 짐작해 볼 때 그도 논증에 대해 화용-대화론적 이론을 지지하고 있는 듯하다. 상대방의 주장에서 어떤 한 진술이 오류라는 것을 밝혀냈다고 해서 그것으로 상대방의 ‘근본적인 추론 방침을 비판하는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폴에게서도 상대방과 논증을 교환하는 것은 그와의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 합의에 이르는 것이 목표이고, 따라서 원자적인 논증 대신에 그 논증이 속한 상대방의 세계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시걸과 폴이 비판적 사고 비판에서 강조했던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나는 상대방의 논증을 해석할 때이고 또 하나는 자신의 논증을 제시할 때이다. 첫 번째, 상대방의 논증을 해석한다는 것은 거기서 원자적으로 어떤 잘못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대립하는 견해들끼리 대화를 통해 의견의 일치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거기에서는 상대방이 전제하는 세계관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고 상대방 논증의 해석도 그 일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두 번째, 자신의 논증을 제시할 때는 우리 스스로가 뿌리 깊게 가지고 있는 믿음들도 반성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비판적인 사고의 기술을 상대방의 믿음이나 제3자의 중립적인 믿음에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믿음에도 적용해야만 한다.

시걸과 폴이 비판적 사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을 여성적인 사고의 가치에서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여성은 대립적이거나 공격적이지 않고 협동을 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논증에서 잘못만 찾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으려고 한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논증에서 오류를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오류로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는지,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더 좋은 논증으로 바꿀 수 있는지 생각해 보고 그것을 상대방에게 묻고 함께 상의한다. 그리고 상대방의 논증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논증이 주장하려는 바에 더 귀를 기울여 해석해야 한다. 상대방에 대한 애착과 감정이입을 통해 상대방을 해석하고 그를 보살피려고 하는 여성은 이 일을 더 잘 할 수 있다. 우리가 구체적인 상황에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있지 않고 그 맥락에서의 경험에 의해 판단하므로 나와 남의 논증의 숨은 의미를 더 잘 파악할 수 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경쟁적이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주장에서 약점이 있는지 스스로 살펴보고 그것이 드러났을 때 고집하지 않는다.

물론 상대방에 대한 애정과 보살핌이 맹목적인 애착이라면 그것은 공정하지 못하게 되고 분명히 비판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보살핌과 애정은 감정에 의해 우리의 행동을 설명할 뿐이지 그것을 정당화하지는 못하여 비판적 사고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가능하다.⁴⁶⁾ 이런 비판은 일리가 있다. 과도한 애정은 공정함과 객관성을 방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과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에게 애정과 관심을 보일 때 생길 수 있는 우려이다. 여기서는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에게 애초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태도가 비판적 사고에 방해가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므로 관심을 보이기 위한 애정은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도 진정한 비판적 사고를 위해서는 애정과 보살핌의 의미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 애정과 보살핌은 정당화를 위한 여러 대안을 열린 마음으로 살펴보게 하여 더 나은 정당화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과정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정중하게 잘 들어주는 것이다. 논증에 대해 아무리 올바른 정당화를 하더라도 그 논증을 들으려는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다면 논증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애정과 보살핌이라는 여성적인 가치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의견을 단순히 ‘잘 듣는’ 태도만으로는 부족하다. 잘 들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의견을 내가 지지하는 의견만큼 비중 있게 고려해야 한다.⁴⁷⁾ 물론 상대방의 의견에 얼마만한 비중을 두어야 할지 결정할 때는 그 의견이 얼마나 그럴듯한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그런 능력은 애정과 보살핌만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관심이 없이는 아예 비중 있게 고

46)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Norris(1995): 209쪽을 보라.

47) 공정한 판단에서 상대방의 의견을 ‘잘 듣는 것’과 ‘비중 있게 고려하는 것’의 구분은 Thomson(1999), 144쪽을 보라.

려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을 것이므로, 여성적인 가치는 비판적 사고를 위한 충분한 능력은 아니어도 꼭 필요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기꺼이 들으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며 상대방의 관점을 의심하기보다는 가치를 부여하는 태도라면 그것은 곧 시결과 풀이 진정한 비판적 사고에서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그런 성향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여성이 남성 못지않게 비판적 사고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비판적 사고를 가르칠 때 남성적인 이성 못지않게 여성적인 가치를 살려야 한다.

4. 맺는말

결국 비판적인 사고에서는 남성적인 가치인 이성과 여성적인 가치인 배려 둘 다 필요하다. 그러나 서로 충돌하는 이 두 가치를 동시에 끌어안는다는 것은 모순적인 태도처럼 보일 수 있다. 양쪽의 좋은 것을 모두 취한 진정한 비판적 사고라는 것은 결국 ‘냉철한 머리와 뜨거운 가슴을 모두 갖춘 전인적인 인간’처럼 수사적인 구호로만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⁴⁸⁾

나는 이 두 가치가 비판적 사고를 적용하는 서로 다른 과정에서 필요하므로 충돌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논증은 전제와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체로 여성적인 가치는 전제에, 남성적인 가치는 결론에 집중된다. 먼저 상대방의 논증을 해석할 때나 자신의 논증을 반성할 때는 그 논증의 전제가 올바른지 또는 대안이 되는 전제는 없는지 검토한다. 그 과정에서는 상대방의 근본 전제들은 더 잘 이해하고 자신의 전제들은 다시 생각해 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거기에는 애정과 감정이입, 협동과 양보라는 여성적인 가치가 개입되어야 한다. 전제가 정해지면 그 전제에서 어떤 결론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도출되는지 검토해야 한다. 전제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전제가 결론을 충분히 지지하는지, 결론은 전제와 논점일탈이 아닌지

48) 익명의 심사 위원께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해 주셨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린다.

따져보아야 한다. 그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논리학의 연습이 필요하다. 거기에는 이성이라는 남성적인 가치가 개입된다.

그동안 비판적 사고는 남성적인 가치에만 주목했다. 곧 논증에서 전제를 찾고 그 전제에서 결론이 제대로 도출하는지를 검토하는 데 집중하고, 그 전제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은 강조되지 않았다. 그래서 거기에 익숙하지 않은 여성들에게는 불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 두 가치가 모두 강조되어야 진정한 의미의 비판적 사고가 달성될 수 있다.

참고문헌

- 길리건, 캐롤. 《심리이론과 여성의 발달》. 허란주 옮김. 철학과현실사.
- 김광수. 2002. 비판적 사고론. 《철학연구》 58: 5-42.
- 니스벳, 리처드. 2004. 《생각의 지도》. 최인철 옮김. 김영사.
- 레이코프, G, M 존슨. 2006. 《삶으로서의 은유》. 노양진·나익주 옮김. 박이정출판사.
- 싱어, 피터. 1997. 《실천 윤리학》. 황경식, 김성동 옮김. 철학과현실사.
- 태넨, 데보라. 2001. 《남자를 토라지게 하는 말, 여자를 화나게 하는 말》. 정명진 옮김. 한연.
- 켈러, 이블린 폭스. 2001. 《생명의 느낌》. 김재희 옮김. 양문.
- 최훈. 2008. 비판적 사고의 성향: 그 의미와 수업 방법. 《철학탐구》 23: 91-117.
- Eemeren, van F. H. and Rob Grootendorst. 1992. *Argumentation, Communication and Fallacies: A Pragma-Dialectical Perspective*.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Ennis, R. H. 1962. A Concept of Critical Thinking. *Harvard Educational Review* 32(1): 81-111.
- Kuhn, Deanna. 1991. *The Skills of Argument*.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orris, Stephen P. 1995. Sustaining and Responding to Charges of Bias in Critical Thinking. *Education Theory* 45: 199-211.
- Nye, Andrea. 1990. *Words of Power: A Feminist Reading of the History of Logic*. New York: Routledge.
- Paul, Richard. 1982. Teaching Critical Thinking in the “Strong” Sense: A Focus on Self-deception, World views, and a Dialectical Mode of Analysis. *Informal Logic Newsletter*. 4(2): 2-7.
- Siegel, Harvey. 1988. *Educating Reason: Rationality, Critical Thinking, and Education*. New York: Routledge.
- Thomson, Anne (1999), *Critical Reasoning in Ethics: A Practical Introduction*, Routledge.

원고 접수일: 2009년 1월 31일

심사 완료일: 2009년 4월 29일

게재 확정일: 2009년 4월 29일

ABSTRACT

Critical Thinking and Female Values

Choi, Hoon

If critical thinking is unfair to women, it should not be an educational ideal. First, this paper considers the claims by Gilligan, Tannen, Nye, and McClintock that critical thinking seeks after male values such as logic, form and abstraction. I argue that it is possible to impart critical thinking with female values such as love and cooperation in addition and that such critical thinking must be educated. Critical Thinking is needed when we interpret charitably an argument as well as we find fault with it. Female values work importantly in such processes.